

바닥까지 미개해져서 우리는 만나다  
 나의 엄마는 더럽고  
 너의 아버지는 뽀뽀 악수  
 떠오르는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잉터리 문장  
 백지 위에 얼룩을 남기며 → 킴 콜리는 것인가?  
 날려고도, 죽으려고도 하지 않는  
 과자나라의 왕들처럼  
 우리는 다시 만나다  
 어릿속은 마른 조개처럼 텅 비고  
 발톱은 새의 부리처럼 두껍고 단단해져서 본능에 따르는  
 그르릉 소리가 터져 나오기 전에! 상태  
 너의 얼굴은 온통 ... ..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원이 마나야. 원가가 있어. 뭘가  
 머리색고 먹겨운 것이!  
 나는 우적 마음에 든다 ) 아주 오만한 태도 간기도 하  
 나는 우적 마음에 들어 ) 고,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  
 감기조 한라.  
 우리는 만나다  
 너의 아버지는 썩고  
 나의 엄마는 맘마 강논감  
 우리가 가진 전부, 몇 개의 단어  
 몇 줄의 덩망의 문장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모조리 경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눈빛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150

300

450

600

750

10

20

30

고 무 나 나 의 인 경 들 처 점

우 리 는 다 시 만 진 다

랑 병 등 , 「 어 린 이 」

· '만 나 대 ~ ' 만 진 다 ' 로 끝 나 는 데 '만 진 다' 라는 동 사 가 어  
린 이 를 절 모 하 게 포 한 하 는 것 같 다 . 아 직 잘 몰 라 서 더  
러 운 것 이 든 위 험 한 것 이 든 금 금 하 거 나 손 에 짚 기 만 하  
면 만 지 고 보 는 아 이 도 의 정 동 이 자 번 스레 떠 오 른 다 . 가  
식 이 나 위 선 없 이 , 바 닥 까 지 미 개 해 져 서 만 나 는 것 은 ,  
상 대 방 을 제 속 해 서 만 진 다 는 것 이 아 닌 까 하 는 생 각 이  
는 있 다 . 어 리 석 고 녀 겜 지 만 그 것 을 마 음 에 들 어 하 고 다 가  
가 는 것 .

20 21. 05. 21